풀체인지 '올 뉴 K3'… 새 심장으로 경차급 연비 실현

기아차 첫 '스마트스트림 G1.6' 적용
첨단 안전사양 적용해 안전성 높여

기아자동차가 L당 15㎞를 넘는 경차급 연비를 인증받은 준중형 세단 '올 뉴 K3'로 시장 평정에 나섰다.

기아자동차는 오는 27일 '올 뉴 K3' 출시를 앞두고 13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자동차 담당 기자단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뉴 K3의 보도발표회를 가지고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K3 풀체인지 모델을 선보인 것은 2012년 1세대 출시 이후 처음이다.

박한우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준중형 세단 이상의 상품성을 지닌 올 뉴 K3가 고객가치증대를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리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왼쪽부터), 권혁호 기아차 국내영업본부 부사장이 '올 뉴 K3'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다. /기아자동차

기아차는 올 뉴 K3의 연간 판매목표를 국내 5만대로 잡았다. 특히 이성적 소비층의 메인인 경제성, 공간성, 안정성을 중시하는 3040세대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올 뉴 K3는 15.2㎞/L 경차급 연비와 다이나믹한 외관, 넓고 편안한 실내, 동급 최고 수준의 안전 및 편의사양 적용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기아차는 올 뉴 K3의 트림을 ▲트렌디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4가지로 세분화한다. 또 기본 트림(트렌디) 가격을 1590만~1610만원 사이에서 책정해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 뉴 K3는 기아차 최초로 '스마트스트림 G1.6'을 적용해 경차급 연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K3 모델 대비 10% 이상 개선된 수치다. 스마트스트림 G1.6 엔진은 듀얼 인젝터를 통해 연료 분사 시기와 분사 비율을 최적화해 다양한 분사 전략을 구현하는 듀얼 포트 연료분사 시스템(DPFI)으로 기존 싱글 인젝터 대비 연소효율을 개선했다.

스마트스트림 IVT 변속기는 변속을 수행하는 부품인 벨트에 고효율 금속 체인 벨트를 적용했다. 전달 효율이 우수한 체인 형태로 연비가 개선되고, 금속 재질로 벨트의 마모 내구성이 강화됐다. 유압 조절을 위한 유량 공급장치에는 구동 토크를 감소시키는 베인 타입 펌프를 적용해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스마트스트림이 적용된 올 뉴 K3는 최고출력 123마력(PS), 최대토크 15.7kgf·m의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올 뉴 K3는 첨단 안전 사양을 적용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량감지)를 기본 장착한 것을 비롯해 운전자 주의 경고, 차로 이탈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을 적용했다. 초고장력 강판을 확대 적용하고, 7개의 에어백 장착으로 강화된 신차 안전도 평가(KNCAP) 1등급을 목표로 해 안전성을 끌어올렸다.

또 'AI 기반 서버형 음성인식 기술'인 '카카오I(아이)' 적용을 통해 운전 편의성을 강화했다. 카카오 I(아이)는 5년간 무료 이용 가능한 UVO 내비게이션에 적용된다.

지난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리틀 스팅어'라는 호평을 받았을 정도로 차체 크기가 기존 모델보다 커진 전장 4640㎜, 전폭 1800㎜, 전고 1440㎜, 축거(휠베이스) 2700㎜다.

올 뉴 K3는 ▲런웨이 레드 ▲호라이즌 블루 ▲플라티늄 그라파이트 ▲스틸 그레이 등 신규 컬러 4종을 포함해 ▲스노우 화이트 펄 ▲실키 실버 ▲그래비티 블루 ▲오로라 블랙 펄 등 총 8종의 외장 컬러와 ▲블랙 ▲브라운 인테리어 등 2종의 내장 컬러를 운영한다.

이날 기아차는 전국 기아자동차 영업점을 통해 올 뉴 K3의 사전계약에 들어갔으며, 27일 공식 출시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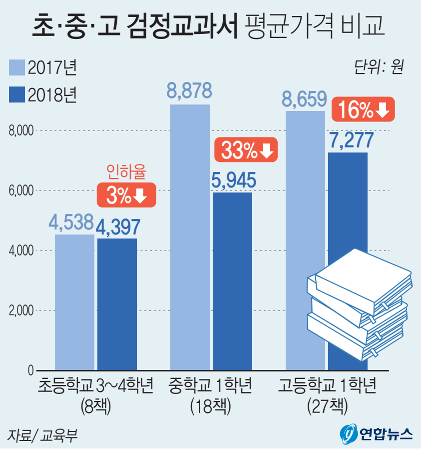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새 검정교과서, 최대 30% 가격 인하

신뢰도 확보 위해 출판사와 협상
평균 쪽수 감소… 원가 인하 요인

올해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대 30%까지 내린다. 새 교과서가 학습량 감소에 따라 평균 쪽수가 감소했고, 교과서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정 가격 분석을 통해 출판사와 협상한 결과다.

교육부는 13일 한국장학재단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2018학년도 검정도서 신간본 가격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는 교과서와 교과목, 수업 방식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새 교과서를 쓰게 된다.



올해 첫 도입된 통합사회, 통합과학 새 검정교과서. /교육부

교육부는 지난해 검정도서 심사를 마친 58책 413종의 교과용도서 가격에 대해 천재교육, NE능률, 대교 등 검정출판사와 4차례 협상을 거쳐 18개 검정출판사 중 17곳이 교육부 권고가격에 합의해 인하했다고 밝혔다. 가격합의에 이르지 못한 출판사 1곳과는 2월 말까지 후속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검정교과서 신간본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3~4학년은 97%(4538원), 중학교 1학년은 67%(5945원), 고등학교 1학년은 84%(7277원) 수준으로 각각 권당 평균 141원, 2933원, 1382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검정교과서 가격인하는 과거 정부에서 교과서 가격자율화와 가격 폭등, 정부의 가격조정 명령과 소송 제기 등 갈등과 불신을 빚은것과 대비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출판사가 사전에 제출한 희망가격에 대해 회계법인의 조사를 근거로 적정성을 분석해 협상 기초가격을 출판사에 제시해 상호 수용 가능한 가격수준을 찾았다.

가격 인하 요인은 우선 새 교육과정의 학습량 적정화 기초에 따라 신간본 교과서는 평균 쪽수가 20.97% 감소하는 등 총 원가 인하 요인이 컸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인정교과서에서 교육부가 가격을 정하는 검정교과서로 전환된 도서가 28책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출판사의 공정이윤을 보장하고 교과서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검정수수료와 수정보완비용을 총원가에 반영하는 등 출판사 가격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초등 3~4학년 지도서는 전년보다 1만7876원 인상된 평균 5만391원, 중1 지도서는 1만9634원 인하된 평균 5만8412원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은 "출판업계의 어려운 사정과 경영환경 속에서도 정부를 신뢰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준 출판사에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새 교과서 가격은 오는 20일 관보에 게재된다.

/한용수 기자 hys@

LG유플러스도 '5G 상용화' 박차

5G 네트워크 장비 제안서 발송
이통3사, 협력사 선정 작업 착수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에 이어 5G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

LG유플러스는 5G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RFP를 발송한 SK텔레콤과 KT를 포함해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5G 협력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5G 네크워크 장비 도입 설명회에 참가한 국내·외 글로벌 장비회사 관계자들이 LG유플러스 '모두의 5G 체험관'에서 5G 생중계를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날 용산 사옥에서 노키아, 삼성전자, 에릭슨 LG, 화웨이 등 국내외 장비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회사의 5G 상용화 전략과 준비 현황, 사업 일정 등을 소개했다.

또 제안요청서에 담긴 NSA 표준을 기반으로 한 장비의 세부 기술과 사업 요구사항 등을 설명했다. 제안요청서에는 NSA·SA 동시지원 요구도 포함됐다. NSA는 기존 LTE 망과 5G 망을 함께 사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고, SA는 5G만 이용한 기술이다.

LG유플러스는 장비제조사들의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서 평가와 기능시험, 개발시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협력사를 선정,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주식 LG유플러스 5G추진단장(부사장)은 "지금까지 LG유플러스는 5G 핵심기술 상용화와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다"며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5G 네트워크 조기 구축과 조기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중기부,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정부가 가맹점과 수익 나누는 '착한 프랜차이즈'를 올해 집중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해 14일부터 3월 16일까지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와 성장형 프랜차이즈로 나눠 지원한다.

이익공유형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본사의 주식을 배당, 지분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업성공시 성과 공유 ▲가맹비를 정액제가 아닌 매출액·영업이익 등에 따라 구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 적용 ▲가맹점 매출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정해진 기간과 금액 범위에서 본사가 손실 보전 등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한 프랜차이즈가 대상이다.

지원은 시스템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 환경 구축 개발비 등으로 자부담 10%를 포함한다.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다.

또 성장형 프랜차이즈는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 있는 가맹사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해 정부지원 즉시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자부담금은 지원 분야에 따라 20~30%로 시스템구축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또 우수사례 발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상생발전 참여 브랜드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상생발전형 프랜차이즈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